

현대당의 걸림돌 - 페르시아만 분쟁

글쓰는 순서

1.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략배경과 그 의미
2. 페르시아만 분쟁을 전후한 아랍권 내부의 동향
3. 이라크의 분쟁유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의도
4. 미소관계의 변화와 UN의 역할
5. 페르시아만을 둘러싼 세계정세의 변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배경과 그 의미

이 62년 예멘전쟁이다. 당시 북 예멘 군사혁명정권은 이라크의 군사지원에 의존했으며 붕괴된 왕정 세 사우디로 망명, 사우디왕국의 지원을 받았다. 이런 역학관계에 의하면 이라크 '쿠웨이트전쟁' 역시 '예멘전쟁'과 유사한 점을 보여준다. 쿠웨이트를 놓고 이라크와 사우디가 서로 힘의 대결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라크가 사우디를 적극 옹호 하면서 아랍합중국 편성을 주도하고 있는 사실은 지난 3,40년대 이집트와 이라크 사이의 아랍 주도권 싸움을 연상시켜준다.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국경선이 두나라간 합의된 조약에 의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이 지역은 오만제국 지배하에서 영국 식민지로 넘어갔다가 이라크는 58년에, 쿠웨이트는 61년에 각각 독립했는데 61년 쿠웨이트에서 영국군이 철수하자마자 이라크의 군부 독재자 카셈은 역사적 근거를 내세우며 쿠웨이트 전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

경 초소를 점령한 적이 있다. 와 루비와 부비안섬은 이라크의 주요 항구인 움 카스르 앞에 위치한 전략 요충지이다. 74년과 78년 사이에 이라크는 이 두섬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이라크의 주장은 두 섬이 해군기지인 움 카스르항으로의 안전 통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이라크는 쿠웨이트가 양국간의 불확실한 국경 분쟁지역을 드러내면서 석유채굴을 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이라크의 주장은 이라크와 이라크가 전쟁을 시작하면서 쿠웨이트가 이 지역에서 석유 채굴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인데 이라크의 전쟁당시 쿠웨이트는 이라크의 전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므로 문제 삼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라크의 전쟁이 끝나고 쿠웨이트가 이라크에 대해 부채상환을 요구, 이라크를 자극했다.

후세인대통령은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대쿠웨이트 공세를 시작했다. 쿠웨이트가 국경 분쟁지역

지역운동론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하여<1>

I. 지역운동의 개념

지금까지 변혁운동속에서의 지역운동이란 개념은 통일전선의 토대로서 지역 통일전선으로 상정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통일전선의 성격과 임무, 구성에 이르기까지 운동권내에서 많은 부분이 합의할 수 없었던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운동의 개념에 대해 막연하게 지역에서 운동하는 것, '운동권이 지역단위에서'라는 체계를 형성하는 것'과 같은 현상적인 이해에 머물렀고 지역적 특수성 속에서 나름대로의 실천적 경험을 통해 개념정리를 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적 조건들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지역운동의 의미를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는 노동, 청년, 청년, 문화 등 제 계급·계층이 연대하여 당면한 정치적 해를 가지고 단결한 구조로 엮어내는 작업, 둘째는 구체적 사안을 가지고 지역 대중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 속에 운동하는 경우(미8군기지 이전 반대, 환경·공해문제 즉 원전 반대, 신도시건설 반대, 공해공간조성 반대 등)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지역운동의 우선적 내용은 첫째째 관점에 주어진 두번째 관점은 지역운동의 특수한 지역적 조건으로 이해되고 있다.

II. 지역운동론의 배경

광주항쟁은 왜 서울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는가? 광주라는 지역적 특수 때문인가? 아니면 역사적 우연인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광주항쟁과 그 앞서 전개되었던 부마항쟁이 갖는 일련의 공통성속에서 찾을 수 있었다. 부마항쟁이나 광주항쟁이 그토록 대규모로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김영삼의 재정이 나 김대중의 구속 때문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반모순이 정권교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지방은 한국사회의 모순이 집약되는 곳으로 마치 제국주의 본국에 대한 식민지와 같은 정치·경제적 관계를 서울에 대해 갖고 있다. 식민지는 제국주의 본국에 모든 인력을 빼앗기면서 거꾸로 모순은 전부 집약된다.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제국주의의 모순은 전부 식민지로 집약되고 결국 식민지에서 그모순이 폭발되고 만다. 이렇게 살펴볼 때 한국사회의 모순은 지방에서 폭발되는 것이다. 지역운동론은 이 발전성에 대한 규명속에서 임태되었으므로 결국 광주항쟁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하나의 결론이었다.

III. 지역운동론의 필요성

지역운동론은 위와 같이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지방으로 집약되어 표출되고 있다는 인식하에서 그동안의 맹목

지역운동의 개념과 필요성

전선운동의 대중성 확대위한 이론체계

적인 서울중심 운동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한 이론이다. 70년대의 민주화운동은 서울이 행정의 중심지라는 사실과 민주화운동역량이 집중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의 서울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지방은 운동의 불모지가 되어 간혹 오기는 인편을 통해서나 서울의 소식을 수동적으로 듣는데 불과했다.

그러나 부마항쟁이나 광주항쟁은 그때까지의 관행적 운동사조에 일대혁신을 가져왔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방이 그렇게 운동의 불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일들을 조직해 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지역운동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의 인식이었다.

지역운동은 지방에 의한 서울의 포위에서 새로운 개념에 입각한 역량배치를 요구하며 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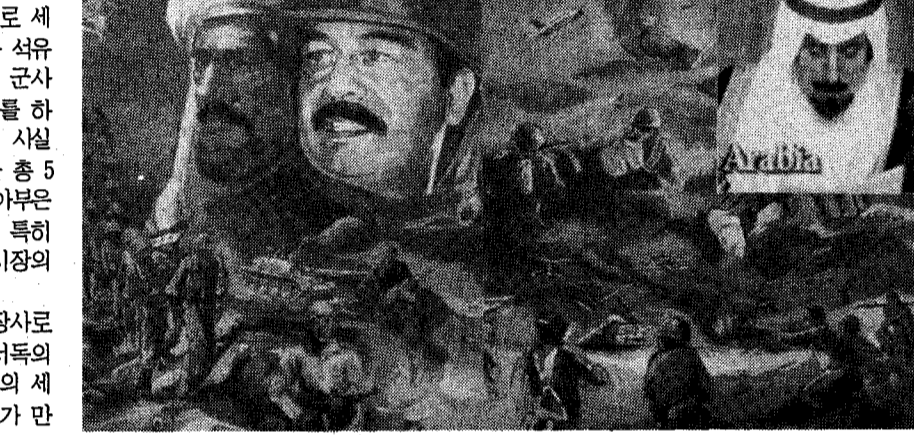
지역운동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의 하나는 바로 '대중성'이다. 서울은 운동이 고도로 정치화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그것은 서울이 우리나라 정치의 중심으로서 모든 모순의 정치적 해결이 이루어지는 장이기 때문이다. 서울은 모순의 발생공간이 아니면서 그 해결공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모든 모순은 서울로 올라오는 순간부터 구성을 잃고 추상화된다. 그러한 곳에서는 운동이 대중화될 수 없다. 운동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모순의 발생공간과 해결공간이 일치해야 한다.

노동운동은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노동현장 속에서 전개될 때 대중성을 살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손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지역운동은 그 지역의 문제를 그 지역에서 해결하는 운동이다. 이는 지역의 문제를 서울로 갖고 올라가 정권교체해서 해결하고자 한 70년대 운동방식에 대한 반성이다. 또한 서울중심 운동이 갖는 비대중성에 대한 새로운 극복의 노력이다. 지역운동은 지역 내에서의 대중적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서울중심의 운동이 갖는 한계를 전체적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성을 갖고 출발한 지역운동론은 그 의의성으로는 서울중심운동에 대한 거부하며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강조로 나타난다. 이는 운동불모의 지역에서 새로운 운동의 틀을 정립하기 위한 절대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운동론이 지역운동의 독자성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지역운동론은 지역운동이 전체 민주화운동의 지역적 실천구조임을 전제로 한다.

지역운동은 전체 민주화운동의 일부분으로서 추구해야 할 보편성과 자신의 정립에 필요한 특수성의 문제는 지역운동의 이중성이라는 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하며 그 독자성, 특수성은 전체운동의 보편성 속에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기획부>



◇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은 아랍권의 패권다툼의 일환

대외 채무·내적경제난 해결 노린 지역분쟁 이라크 득세로 중동 정세의 재편 예상대

시 지역 이기주의의 발로라는 짚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동일한 종교와 동일한 민족이라는 가장 기초적 정서 역시 지역과 집단 이기심 앞에서는 전혀 고려되는 사항이 아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은 그 배경에 역사적 측면, 정치·경제적 측면, 후세인대통령 개인적 측면 등 몇가지 복합 요소가 있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수십년 동안 계속된 이라크의 패권다툼의 일환이자, 형제끼리의 싸움이라는 사실이 가장 주목받는 사실이다. 이라크의 후세인은 이로써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반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이라크세계의 군주로 군림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표시한

라 국가로 분할되어 독립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아랍권 민족주의 운동과 아랍통합운동이 지금까지도 정치 정점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이 아랍통합운동의 패권다툼이 수십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30년대와 40년대에는 아랍권의 주도권 싸움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나일강 세력'과 이라크를 중심으로 하는 티그리스·유프라테스 세력'으로 이분되어 전개됐다. 그러다가 52년 군사혁명을 성공시킨 이집트의 영웅 나세르가 등장한 이후에는 이집트 중심의 혁신파와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의 보수파의 대결로 주도권 싸움의 양상이 변했다. 이 양대 세력의 충돌

졌다. 즉 오만제국 통치시대에 쿠웨이트는 바스라주의 한 구역에 지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라크의 위력에 속수무책이던 신생쿠웨이트는 급기야 영국에 도움을 요청, 61년 7월에 파병된 영국군의 지원으로 겨우 이라크의 침공을 막을 수 있었다.

그이후 쿠웨이트는 역대 이라크 정권과 최종적인 국경선 확정과 조약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이라크의 적국적인 반응을 얻어낼 수 없었다. 이라크의 바트당 정권은 카셈처럼 쿠웨이트 영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하지 않았지만 73년 7월에 이르러, 부비안 두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쿠웨이트를 침공, 쿠웨이트의 여러 국

에서 24억달러어치의 원유를 채굴해왔다며 이의 배상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쿠웨이트가 석유수출기구(OPEC)의 석유생산 쿼터를 위배하고 과잉생산을 함으로써 연초 배럴당 20달러를 웃돌던 원유가격을 6월말 현재 13달러 수준으로 하락시켰다고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다. 쿠웨이트는 하루 1백50만 배럴로 책정된 쿼터를 50만배럴이나 초과생산하고 있다는 이라크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쿠웨이트는 이에 맞서 7월 20일 '이라크의 비난은 이라크 전쟁 당시 전비를 빌려온 채권국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목적인다'는 역공세를 취했다.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관계가 심상치 않자 OPEC는 7월 26일 회의를 개

세인은 미 행정부나 이스라엘 또는 이라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외부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일을 저지르기가 그만큼 쉽다'고 평가하고 있다. 쿠웨이트 침공이 일어나기 전 발간된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후세인을 꼽은바 있다.

후세인의 호전적인 기질은 1980년 샤프트 알 아랍 수로의 영유권을 둘러싼 이라크의 8년전쟁으로 불분했다. 1천7백만 이라크 국민의 대다수가 시아파이니 소수파인 수니파에 속하는 후세인은 이라크군에서만 1백만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이라크의 전쟁을

라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이라크의 전쟁에서 얻은 정치적 손상을 재빨리 되리는 수단으로 쿠웨이트와 이라크의 전쟁이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후세인은 이라크에서는 전쟁 영웅이요, 아랍의 위대한 지도자이다. 나이 어린 소녀들도 '사담, 사담, 그대 위해 피를 흘리리'란 노래를 흥얼거리며 거리를 지나다니고 바그다드 전역에는

곳곳에 그의 초상화가 나붙어 있다. 그러나 이라크의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88년 국경 지역의 할라브와 마을에 사는 친이랑게 쿠르드족에 독가스 살포를 명령해 주던 5천명을 살해한 일도 그의 옛을 수 없는 죄악으로 남아 있다.

조용준 (동문-연인인)

사람을 소중히, 꿈을 소중히



이기환 (사진 오른쪽) 67년생으로 서울대학교를 나와 오세재 차장 57년생으로 서울대 공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4학년에 재학중이다. 한국과학기술원(KIST) 항공공학 석사과정,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같은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후, 현재 삼성항공 항공우주연구소 연구 1실에 재직중이다.

과학 기술인의 평생일터, 삼성에서 젊은 공학도의 꿈을 펼쳐 보십시오.

경기도 기흥, 8월의 햇살이 그물처럼 뻗어내리던 삼성종합기술원에서 연세대학교의 이기환군이 삼성항공 우주연구소 오세재박사를 방문, 햇빛보다도 화창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었다.

이:이후 기술원의 용지에 놀랐었는데 오 박사님의 큰 키에 아주 압도당하는 기분입니다.
오:하하 나이말로 이군의 매서운 눈매만큼이나 날카로운 것만 같은 질문공세가 사뭇 두려워지는군요.
이:먼저 오 박사님은 미국에서 더 나은 생활과 연구활동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귀국하시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오:미국에서 일하는 만큼 여건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더 좋은 환경에서의 연구와 학문에 대한 욕심은 있었지만, 서울 뿌리는 마음으로 일한다면 미국보다 의미는 있지 않겠는가 해서 결심을 굳혔지요.
이:저희도 이즈음이면 진로문제로 열병을 앓다시피 합니다만, 특히 삼성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무엇보다 삼성이 과학기술분야에 그릇 차원의 총력을 쏟는 기업이라는 점이었고, 규모도 그렇지만 그 역동만큼은 제가 접촉했던 웅만한 미국 기업들 이상에서 감명 깊었지요.
이:우리가 밖에서 듣기에 삼성이 인재에 소중히 하는 대표적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점은 어떨습니까?
오:매칭 기다렸던 질문을 해주신군요. 저희 삼성이 가장 애를 써 왔고 애를 쓸 경영방침이 바로 그것이지요. '기업은 곧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기업만이 스스로도

를 수 있고 국가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삼성이 오늘날 한국의 대표적 기업이 되고 세계 초일류기업들과 경쟁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것도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기업과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키워왔다는 정신때문이지요. 한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 삼성이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힘써온 '평생직장'으로의 경영방향을 다 그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안정된 마음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다면 우리 과학기술도들에게 그보다 더 좋은 여건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과학기술도의 선배로서 저희 이렇게 학생들에게 해주실 조언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글쎄요, 저로서는 과학기술도로서의 프로페셔널리즘과 경제개념의 조화로운 지식습득에 힘써야 한다고 보아져요.
이:그렇다면 꼭 지켜야 할 일터에는 대요.
기회가 닿아 꼭 오 박사님과 일하며 배우고 싶습니다.
오:좋습니다. 저희 삼성은 언제나 이군과 같이 기꺼워지는 젊은 과학기술도를 원하고 있어요.
자리를 옮겨 제 연구실에 초대하며 마시며 스프링을 갖는게 어떻습니까, 하하.
이:고맙습니다. 차차말로 기다렸던 초빙을 해주신은군요.

